‘살아있는’ 전시물·‘파격적인’ 오페라

〈전시 B〉 〈맥베스〉

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 페스티벌 추천작

중국 경극 ‘홍등기’ … 작가와 투어 ‘리퍼블릭:제로’ 눈길

자오량·차이밍량 영상·설치…극장 구경하며 무료 관람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 개관페스티벌(21일까지)이 한창이다. 상연작들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형태의 작품들이라는 점에서 어렵기도 하지만, 파격적인 구성과 발상으로 놀라움을 안겨주기도 한다. 각 작품마다 공연 후 아티스트 토크가 마련돼 있으니 적극 활용하면 좀 더 흥미로운 관람이 될 수 있다.

예술극장이 추천하는 이번 주 화제작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아티스트 브렛 베일리의 작품 2편이다.

10~11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공연되는 ‘맥베스’는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독특한 형식의 오페라다. 1994년 르완다 학살 이후 전쟁과 끊임없는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혼란이 이어진다. 난민이 되어버린 한 극단이 어느 날 낡은 상자를 발견하고 되고 그들은 상자 속에 든 악보, 의상, 소품을 활용해 총알 자국이 남아있는 그래피티가 그려있는 건축물을 무대 삼아 베르디의 오페라 ‘맥베스’를 공연한다.

‘전시 B’는 파격적인 작품으로 지난 2014년 런던 바비칸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었지만 퍼포머들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취소됐었다. 전당 공간 중 옛 전남도청에 자리한 5·18민주평화 기념관 컨퍼런스홀에서 열리며 19세 미만은 관람 불가다.

브렛 베일리는 아프리카 노예들의 이야기를 전시 형태로 기획했고, 배우들은 노예 식민지 시대를 연상케 하는 전시실에서 박제된 표본처럼 머문다. 관객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살아 있는’ 전시물들이 관람장으로 들어서는 당신을 맞이하는 색다른 경험을 하게 된다.

11일과 12일 오후 8시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중국국립경극원의 ‘홍등기’는 이번 페스티벌 작품 중 관객들에게 가장 익숙한 형태의 공연이다. 중일 전쟁 시기를 배경으로 가족 삼대의 이야기가 펼쳐진다.

꼭 정식 공연 관람이 아니더라도 전당과 예술극장에 궁금증을 갖고 있다면 예술극장 내부와 주변을 ‘산책하듯’ 둘러보며 무료 작품을 관람하는 것도 좋다.

중국의 다큐감독 자오량의 두 편의 설치작품과 두 편의 다큐멘터리 영상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예술극장 대극장(일부)과 오픈홀(로비)에서 만날 수 있는 작품으로 ‘동풍과 서풍’(11일~12일 오후 7시30분), ‘검은 얼굴, 하얀 얼굴’(13~17일 오후 2시~밤 12시), ‘고소’(13일 밤 10시) 등이다. ‘베헤모스’(10일 밤 10시)는 올해 열리는 베니스영화제에 참가작이다.

광주극장에서 열리는 차이밍량의 영상 설치물 ‘차이밍량의 영화관’도 11~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사카구치 교헤의 ‘제로 리 : 퍼블릭’은 흥미로운 작품 중 하나다. 지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후 일본 정부와 기득권에 실망한 건축가 사카구치 교헤가 구상한 ‘새로운 나라’ 프로젝트로 작가는 동구 일원의 각 건물을 특별한 공간으로 꾸몄다.

제로 리 : 퍼블릭에 대한 모든 정보 여권·지도를 발급해 주는 ‘제로입국관리소 & 정보센터(예술의 거리 돌실나이 골목), 대화와 책과 드로잉이 함께하는 리퍼블릭 사랑방 ‘제로센터’(동구 산수동), 토론과 교육, 파티가 열리는 ‘제로 광장’(동구 동명동), 나만의 통화로 숙박할 수 있는 ‘제로호텔’(동구 대의동 바림스튜디오)로 구성돼 있으며 모든 공간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브렛 베일리 작 ‘맥베스’

지도를 지참하고 개별적으로 둘러볼 수 있으며 11일(오후2시), 12일(낮12시), 13일(오후 3시) 작가와 함께하는 ‘제로 투어’(무료)에 참가할 수 있다. 문의 010-6326-3556.

티켓 가격 5만원~3만원. 예술극장과 어린이문화원 관람 티켓을 가져오면 3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랑티켓 사용도 가능하다. 문의 062-410-361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가곡으로 부르는 ‘가을’

광주전남우리가곡부르기 내일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초청 작곡가 김경양 교수

‘노래로 전하는 가을 내음.’

광주전남 우리가곡부르기 9월 행사가 ‘국화 옆에서’를 주제로 열린다. 11일 오후 7시 30분 광주시 북구 임동 강숙자오페라라인 연주홀.

이달의 초청 작곡가는 김경양 조선대 명예교수로 그가 서정주 시인의 글에 곡을 부친 ‘국화 옆에서’를 함께 배우고 부르는 시간을 갖는다.

또 시낭송가 최해훈 씨가 도종환의 ‘가을사랑’을 낭송하며 ‘아, 가을인가’, ‘추심’, ‘산들바람’. ‘가을바람’, ‘코스모스를 노래함’ 등을 함께 부른다.

이번 달에는 회원들의 중창 무대도 준비했다. 고재경·장흥식 씨가 ‘사랑하는 마음’, 유옥순·강건상 씨가 오페라 ‘춘향전’ 중 ‘사랑가’를 부르며 김종혜씨와 유정숙씨는 ‘꽃구름 속에’와 ‘첫사랑’을 들려준다.

초청 성악가로 참여한 바리톤 김치영〈사진〉씨는 ‘청산에 살리라’, ‘그리운 마음’을, 빛고을 노인건강타운 합창단(지휘 김경양)은 ‘국화 옆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들려준다.

1만원을 내면 차와 간단한 먹을 거리를 제공한다. cafe.daum.net/gjkrsong 문의 010-2694-4592, 062-575-5999.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천원의 낭만 ‘아시아 로망스 콰르텟’

14일 광주문예회관 소극장

천원으로 다양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행복한 문화충전 천원의 낭만’이 오는 14일 오후 7시30분 광주문예회관 소극장에서 열린다.

이번 무대에 서는 이들은 ‘아시아 로망스 콰르텟’으로 멤버는 제1바이올린 박하늘, 제2바이올린 박주앙, 비올라 양윤서, 첼로 정아름이다.

연주 레퍼토리는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슈베르트의 ‘죽음과 소녀’를 비롯해 모차르트의 ‘4중주 14번 작품 387’, 바에르만의 ‘현악 4중주와 클라리넷을 위한 5중주 작품 23’ 등이다.

천원의 낭만 공연은 광주시와 (사)아시아공연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하며 매달 한차례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진행한다. www.gjasia.org. 문의 062-226-203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김환기아트페스티벌-안좌도 랩소디’ 전시회

10~16일 목포종합예술갤러리

제4회 ‘김환기아트페스티벌-안좌도 랩소디’ 결과물 발표전시회가 10일부터 16일까지 목포종합예술갤러리(목포여객선터미널 4층)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전남문예재단 ‘남도문화예술특성화 기획사업’ 공모에 선정된 ‘아트앤커뮤니케이션(대표 오남석)’이 떠도는미술관(Gallery Fluxus), 김환기창작스튜디오 레지던시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참여자들이 제작한 작품들을 모아 출품했다.

7주간의 교육을 통해 안좌중, 안좌초, 팔금초 학생 60명이 그린 그림 및 입체우체통 전시, 외국작가 6명과 국내작가 24명이 참여하는 본전시, 그리고 김환기 작품 ‘10자 구도’ 등 20여점의 원작 및 복제품 전시 등 총 100여점의 작품들이 선보인다.

레지던시 참여작가 전시회에서는 나현·강홍구·Berndt Halbherr 중앙대 교수·Ingo Baumgarten 홍익대 교수가 그림·사진·설치 조형물 등의 작품을 가지고 참여한다.

한편 이번 전시회 참여를 위해 김환기의 둘째 딸 김금자 여사와 가족 10여명이 처음으로 목포를 방문할 계획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깨워라 20대! 나를 찾기 위한 도전’

대학생활 박람회 ‘컬처파크’ 열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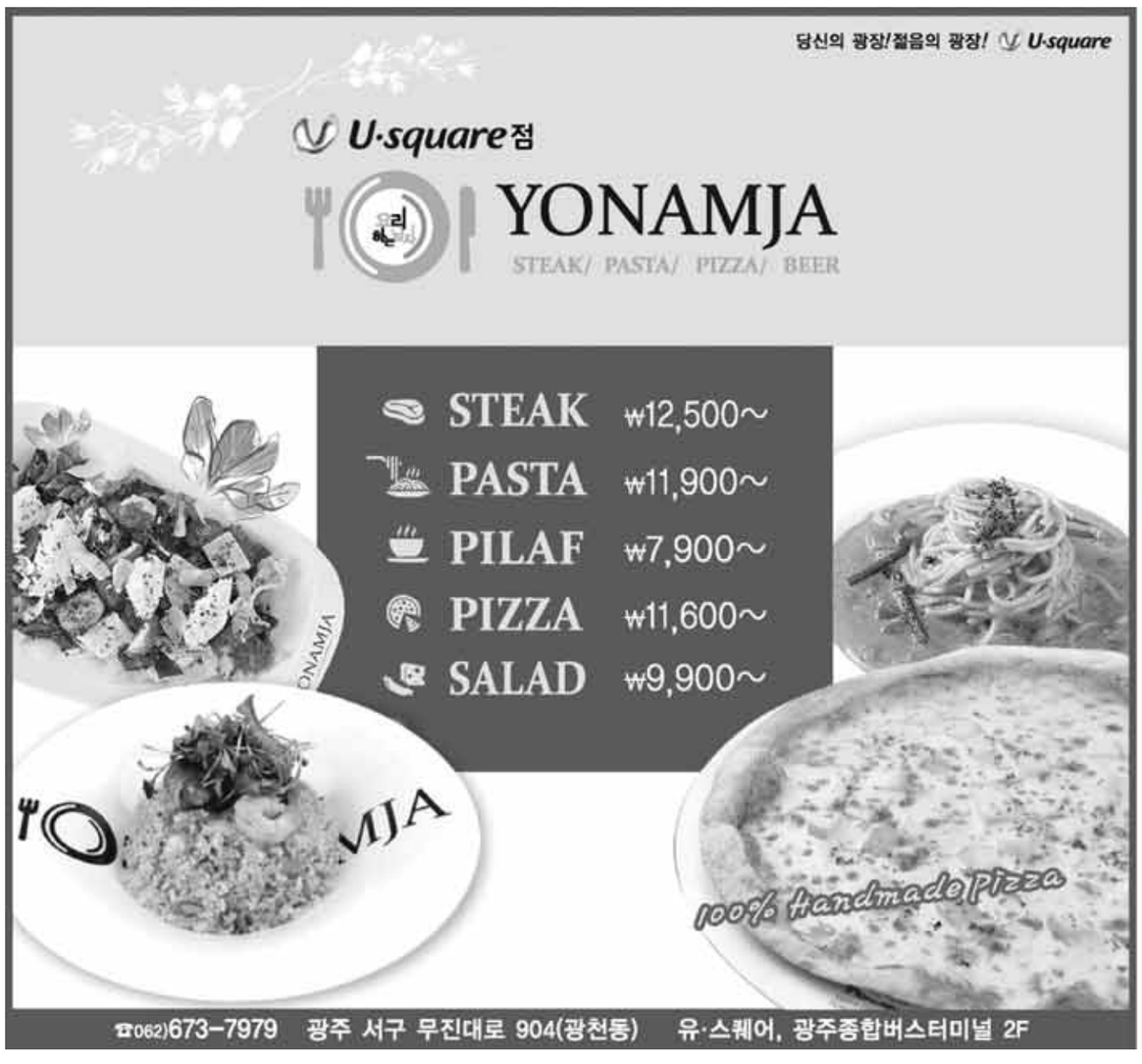
14일 전남대학교

대학생들이 직접 기획하고 만드는 대학생활 박람회 ‘컬처파크’가 오는 14일 전남대학교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대학생들의 모임인 ‘컬처팩토리’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쉴 틈 없이 바쁜 청춘들에게 주는 자유이용권’이라는 주제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남대 봉지와 경영대학 CBA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강연·동아리 정보 등을 제공하는 드림존과 각종 이벤트와 플리마켓 등 다양한 놀거리를 즐길 수 있는 청춘존 등 다채롭게 구성됐다.

드림존에서 ‘깨워라, 20대! 나를 찾기 위한 도전’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연은 멘토들의 인생과 성공 실패 스토리를 진솔하게 들려준다. 강연자로는 추민수 아모틱협동조합 대표, 강수훈 스토리박스 대표, 최세라 아이술크림 대표, 이한샘 다메리노 대표, 김준범 학생대표 등이 나선다.

또 서울 중앙대, 단국대 등이 참가해 각 학교 동아리를 소개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기회도 갖는다. 문의 010-2793-2655.

/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